

진로교육 바로 알기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변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광호(EBS <마더 쇼크> 연출자) 씨는 부모교육 관련 행사나 강연회 등에 참석해보면 자녀교육에 있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오른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 역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유지하려는 부모의 고정관념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몸도 마음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대로 된 인간관계'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의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고등학생은 진학 학교의 유형에 따라 진로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알고 그에 따라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진로 경로가 다양해지고 취업이나 창업 또는 생소한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도 자녀의 적성과 진로가 분명하다면 그 결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녀에 성장에 맞춰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십시오.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바라는 진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자녀가 '어떻게, 왜 진로를 정했는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한 걸음 물러선다면, 자녀도 자신의 적성에 맞춰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래끼리

특이한 직업보다는 먼저 자신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물론 특이한 직업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신기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이것저것 따져보면 자신과 맞지 않아 또 다른 이색 직업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관심 분야를 먼저 알아보는 게 효율적일 듯해요. 관심이 있는 것을 찾게 된다면 확실한 길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김*진(고등학생)



고1 여학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특이한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직업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선생이라고 하면 초중고 교사밖에 모르는데, 실은 그 큰 틀 안에 세세한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구분하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습니다. 우선 뭘 하고 싶은지부터 고민해보세요! 김*수(고등학생)

저도 그런 직업이 있는지 친구들에게 알아본 적이 있는데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 그쪽 분야에 있는 직업들을 찾아봤더니 요즘에 새로 생긴 직업들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주목받는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재활용 코디네이터, 동물보호 보안관, 무인항공촬영감독, 범죄과학수사관 등이 있어요. 님도 열심히 찾아보세요!

김*영(중학생)

※ 「또래끼리」는 커리어넷에서 운영하는 또래상담 '친구야~ 도와줘!'의 내용을 월 1회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또래끼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확인해보고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막연히 특수한 직업보다 님이 어떤 쪽의 일에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지를 고려해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수한 분야는 특수한 만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력 구하는 것 또한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은(성인)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예술 분야(문화재)」 관련 직업 및 학과를 소개합니다

[직업 살펴보기 : 문화재보존원]

▼ 직업 개요

- 문화재보존원은 궁궐, 사찰, 미술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 등 유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예술품의 파손된 부위를 복원, 관리하는 기술적인 업무를 합니다. 손상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되살리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합니다.

▼ 직무 내용

- 크게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존과학 기술자 및 기능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문화재수리 기술자는 기술을 자문하고, 각종 공사와 문화재수리 기능자를 관리·감독하며, 원형 고증 조사 또는 전통 기법의 연구·조사·제작 업무를 합니다. 보존과학 기술자 및 기능자는 문화재의 손실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파손을 보존 처리하며, 적외선 분석기, 전자 현미경 등을 사용해 예술품의 재질, 제작 기술 및 기타 예술사적인 단서를 분석합니다.

▼ 관련 흥미 및 적성

- 석조물 및 미술품 등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손재주가 있어야 하며, 유적·유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 및 문화재 보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꼼꼼함, 인내심,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학과 살펴보기 : 문화재발굴보존학과]

▼ 학과 특성

- 문화유산은 국토 개발에 앞서 역사를 복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화유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원, 발굴된 문화재를 관리하고 전시하는 학예사, 문화재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는 학자, 문화재와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유물 복원 실습 : 유물 복원의 기본 원리 습득
- 보존과학 개론 : 고고유물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방법을 습득
- 문화재 실측 : 문화재 조사의 실내 작업인 유물 세척, 복원 실측, 제도, 편집 등을 동시에 학습하고 실습
- 고고학 특강 : 고고학의 자료 분석법과 통계 처리법, 논문 작성법 등을 학습

▼ 졸업 후 진출 분야

- 발굴조사 연구원, 박물관 학예사(큐레이터), 문화재 수리 기술자
-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학예사·연구원, 문화재 전문 공무원
- 문화재 수리 기술자, 언론사 문화재 담당 기자·PD, 문화콘텐츠 개발업체 연구원 등

(출처: D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진로소식

꿈과 끼의 길잡이, '커리어 플래너'

학생들이 편리하게 개인의 진로와 학습활동에 대한 일정과 기록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커리어 플래너'를 이용해보세요.

◆ 주요 기능



나의 일정

진로·학습활동 및 개인 일정 계획과 관리



진로 플래너

진로활동 일정 및 기록만 모아서 등록/조회/관리



학습 플래너

학습활동 일정 및 기록만 모아서 등록/조회/관리



커리어넷 활동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진로검사, 상담, 관심정보 별로 학생의 개인 이력을 확인



친구 설정

진로·학습활동 계획을 친구·교사·학부모와 공유

◆ 이용 대상

- 초등학생: 자신의 진로 특성 및 관심 분야 탐색
- 중학생: 진로수업, 상담, 체험 등 관리
- 고등학생: 진로 및 진학 선택 시 자료로 활용
- 교사: 학생의 진로 상담 및 지도 시 자료로 활용

◆ 이용 방법

① PC를 통한 이용 방법

-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www.career.go.kr>) 접속 → 커리어 플래너를 클릭
- 커리어 플래너 학생용(<http://plan.career.go.kr>) 입력
- 커리어 플래너 교사용(<http://tplan.career.go.kr>) 입력

②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 방법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웹용